제1, 2성공 사이에서

(요4:43~54)

43.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52.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1, 2성공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제1성공과 제2성공, 제가 한번 그렇게 구분해봅니다.
제1성공은 무엇인가?
자기부흥을 이룬 자들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인간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부흥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부흥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방법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재벌이 되어 유명해지면서 알려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인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제1 성공.
그러니까 요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분이 박 근혜 씨,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님, 제1 성공자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각 분야별로 축구선수로는 박 지성, 이 청용, 구 자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으로는 장 동건 씨, 유 재석 씨, 제1 성공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2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중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제1 성공이라고 한다면 제2 성공은 제1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발탁된 사람들, 박 근혜 씨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박 근혜 씨가 제1 성공자인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제2 성공자입니다.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비서나 수행원으로 채택될 때 제2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장 동건 씨와 결혼한 고 소영 씨, 물론 자신도 성공한 여배우입니다만, 결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장 동건 씨가 제일 잘생긴 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제1 성공자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꼭 이러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킹카였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제2 성공자라서 과내의 다른 여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 이것도 제2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1 성공자들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람들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기부흥을 이룬 자들이고, 제2 성공자들은 제1 성공자의 마음에 든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분야에서의 제1 성공자의 마음에 들기를 거부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제1 성공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박 근혜 씨에 대해 문 재인 씨가 그런 관계고, 반 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무총

장후보들이 라이벌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1 성공자의 마음에 들려는 제2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 나도 제1 성공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자들은 라이벌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자, 신앙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전제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1 성공자와 제2 성공자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것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인 한에 있어서, 제1 성공자이시고 절대적인 성공자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다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박 근혜 씨가 대통령을 잘 마쳐야지, 이 명박 대통령처럼 친척 형제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대통령이 끝나고 청문회를 열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든지 이건 성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성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 없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공자이시고 절대적인 제1 성공자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는 자들은 제외해놓고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제1 성공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꾀할 때, 그것이 세상 안에서만 볼 때 박 근혜 씨 같은 제1성공자이든 아니면 인수위원이 된 제2성공자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박 근혜 씨에 대해 문 재인 씨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 라이벌관계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제1성공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말고 다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따로 나의 성공을 꾀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라이벌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의미는 오직 제1성공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에 우리 인생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박 근혜 씨의 마음에 들어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번에는 내가 박 근혜 씨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이 건희 씨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따로 나의 성공을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라이벌관계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박 근혜 씨가 나를 장관으로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제1 성공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박 근혜 씨 마음에 들기를 원하거나 내가 박 근혜 씨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라이벌관계에 서게 되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중심축과 같은 말씀이고, 나머지 46절에서 54절까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칭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사마리아 이방지역에서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하리라' 이건 유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선민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로 앞에 이방지역의 사마리아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의 많은 사마리아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마리아지역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는데도 많은 사람이 믿었고, 유대지역 선민들의 지역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기는 믿었어요, 결국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53절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문제에요.
요한이 흔히 믿음이라고 쓰는 이 말은 여러 경우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믿음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 중에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기도 보면 믿었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때, 믿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나은 것을 보고 나았던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일치한 것을 확인한 뒤에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다 가짜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병은 고쳐주십니다마는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믿겠구나,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피로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만 회의에 가득 차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마리아지역에서는 높임을 받는데 여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높임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민들이 높임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높임이라는 것은 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선지자를 헐값으로 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존재의 주목적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짓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존재목적이 뭡니까?
바로 제2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절대 성공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민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우리가 비교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사람들에게서는 왜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하셨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대단한 큰 비밀을 가르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여자의 상황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여자가 믿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마리아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여호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통일왕국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북왕국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북왕국의 그리심 산에 예배처소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서 예배를 그 산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침공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어서 이방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5경을 붙들고 있었고, 여호와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과제는 여호와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하

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서 멋진 제1 성공자가 돼보겠다는 게 꿈일 수가 없고,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가 아닌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집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여호와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부름에 응답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아하시느냐 아니냐가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던 반면에, 유대의 선민들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맞아하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다윗왕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면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혼혈이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마음에 맞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이방민족으로 둘러싸여서 이방민족이 보는 가운데 한번 멋지게 나를 표현해봐야지! 나의 성공을 한번 이루어봐야지!
이게 바로 이들의 꿈이었고 궁극적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제1의 목적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권면하고 촉구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들이 헐값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선민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제1 성공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라이벌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 돌린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지적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유대선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높임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지역에서는 선지자의 기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마리아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 일치하고 맞아떨어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안에 정통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마음에 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가르쳐주실 때, 착 달라붙고 예수님을 끌어당겨버립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제1 성공자가 되려는 자기들의 꿈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직 이 세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로서 나타나신 주님을 덥석 끌어안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가능한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산적한 땅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제1 성공자가 우리의 꿈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한 제1 성공자들의 마음에 드는 제2 성공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절대 제1 성공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2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 제1 성공자이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2 성공만이 참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제1 성공을 꿈꾸든 제2 성공을 꿈꾸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제1 성공자이신 것처럼 나도 제1 성공자 되겠다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인생의 의미가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2 성공자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